〈기술혁신형〉

이노비즈 젊은기업 5년새 60% 증가

광주·전남 올 61개사 등 699개사 인증

코스닥 상장·기술보증 금융지원 혜택

이노비즈(Inno-Biz·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보증에 대한 금융 지원과 코스닥 상장 특례, 연구개발(R&D) 및 판로·수출 지원 등 일반 중소기업보다 혜택이 두둑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 사이 이노비즈 인증 기업이 60% 증가했다.

29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에 따르면 8월 현재 광주·전남지역 이노비즈 인증 기업은 699개사다. 광주 351개, 전남 348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했다. 전국적으로는 총 1만7456개 사가 있다.

최근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코스닥 상장 특례 등이 부각되면서 급증세다. 광주·전남에서만 매달 10~15개 사가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지난 2007년 437개 사에 그쳤던 광주·전남지역 이노비즈 기업은 2008년 552곳, 2009년 599곳, 2010년 621곳, 2011년 669곳, 올해 699곳으로 최근 5년 사이에 262개사(60%)가 증가했다.

올들어 61개 업체가 새로 인증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개 업체보다 22% 증가한 수치다.

최근 인증을 획득한 광주·전남 이노비즈 기업은 자동차용 안전벨트를 생산하는 (주)유프렌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제조업체 (주)위드솔루션, U-헬스케어 셋톱박스를 개발한 (주)바소콤, 병충해 방제기 제조업체 (주)동서그린산업, 마이크로 버블 생성기 생산업체 (주)엘플러스, LED조명 업체 (주)휴먼라이텍 등이다.

이들 기업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특히,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해

■광주·전남 이노비즈 기업 연도별 현황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노비즈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편,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이날 오전 중기청 회의실에서 최근 인증을 획득한 혁신형 중소기업 대표 12명을 초청해 '혁신형기업 인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유영곤 (주)유프랜드 대표이사는 "혁신형기업 심사 서류가 논문을 바라는 듯 너무 복잡하고, 심사도 그 분야 기술 전문가들이 아닌 비전문가들이 모여 갑론을박 한다"며 심사서류 간소화와 심사의 전문성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식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중소기업청과의 연계·소통을 위해 중기청 내에 이노비즈협회 사무실을 마련했다"며 "기술 중소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내 규제 완화 및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노비즈(Inno-Biz)=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29일 광주전남중소기업청에서 열린 '혁신형기업 인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에서 이의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중흥건설 순천 신대지구 아파트 1842가구 분양

조례동 견본주택 내일 오픈

중흥건설(대표이사 정창선)은 31일부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순천 신대지구에 '중흥S-클래스 메가타운' 1842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조감도〉

중흥건설은 앞서 순천 신대지구에 총 5534가구를 성공적으로 공급했으며, 이번 분양분까지 공급하면 총 7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들어서 미니 신도시급 중흥S-클래스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중흥S-클래스 메가타운'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7개 동으로 전용면적 59㎡(24평), 74㎡(30평)A, 74㎡B, 84㎡(34평)A, 84㎡B(33평), 106㎡(42평) 총 6개 타입으로 구성돼 선택 폭이 넓다.

중심상업지구와 맞붙어 있으며, 초·중·고 예정지와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 신대지구에 지금껏 공급해 왔던 단지 중 최대 규모인 만큼 최대 규모 특화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에는 조경을 특화한 석가산, 산수유정원, 한글마당 등이 조성되고 여름철에는 어린이놀이터가 테마형 물놀이 놀이터로 가동된다. 단지 내에는 25m 4레인 실내 수영장과 배드민턴, 탁구 등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오픈 이벤트도 다양하다. 방문고객 전원에게 응모권을 증정해 푸짐한 가전제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황금열쇠 등을 내건 주말행사도 준비됐다. 계약고객 대상으로는 혼다자동차 신형 CR-V 차량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견본주택은 순천시 조례동 조례호수공원 맞은편에 마련됐으며, 31일 오픈한다. 분양 문의 061-727-100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돌파구 열리나

박삼구 회장 오늘 광주서 기자간담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30일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 교착 상태에 빠진 금호타이어 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박 회장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30일 오후 3시 유·스퀘어 2층 회의실에서 박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호타이어 김창규 사장과 임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임단협 교섭 등 금호타이어 노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사원들의 임금을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맞출 것을 약속하면서 노조에 워크아웃 기간만 참아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추측된다.

워크아웃이 끝나면 기존에 반납했던 기본급 5%와 상여금 200%를 즉시 회복하고 노사공동조사위원회를 통해 경쟁사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사측이 제시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8일 노조가 제28차 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이 실무 대화를 하자며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사측은 지난 15일 27차 교섭에서 2010년 합의사항(기본급 10% 삭감,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반납 등)을 고수하며 위로금 형식의 일시금(5월 상여금의 150%), 사원 임금·복지 수준 경쟁사 동등 수준 유지를 위한 노사 공동조사위원회 구성,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정년 연장 등 14개 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임금 13% 인상, 2010년 노사합의에서 반납하기로 한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회복,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수정안을 거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30대그룹, 협력사 지원액 작년보다 16% 증가

30대그룹의 올해 협력사 지원 금액은 작년보다 16.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에 따르면 30대 그룹은 올해 상반기 7천210억원을 협력사에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1조698억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체 지원 금액은 1조7908억원으로 작년 1조5356억원보다 2552억원 증가한 수치다. /연합뉴스

회사채 발행 신용도 현대중공업 가장 높아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10대 재벌 가운데 신용도가 가장 높은 곳은 현대중공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회사채를 발행한 대기업은 삼성그룹으로 집계됐다.

29일 재벌, CEO(최고경영자),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 24일까지 국내 10대 그룹 소속 상장사 46곳의 회사채 발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은 3회에 걸쳐 총 1조2000억원을 평균 연 3.51%의 금리로 발행했다. 롯데그룹이 그 뒤를 따랐다. /연합뉴스

세금징수 최장 9개월까지 유예

국세청 태풍피해자 세정 지원

국세청은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 담보의 제공을 면제해 준다고 29일 밝혔다.

자진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늘어난다.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하고 체납액이 있다면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체납 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늦추기로 했다.

태풍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때는 미납되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 할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담당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해 접수를 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호미쓰이화학 여수공장 증설

금호석유화학 계열사인 금호미쓰이화학(주)은 29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수공장에서 폴리우레탄 핵심 원료인 MDI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5만t을 추가 증설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 화학계열사 사장단 등 임직원, 김충석 여수시장, 모리타 MCI 이사, 장영 하이테크엔지니어링 사장 등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해 7월 여수시와 MOU를 체결한 금호미쓰이화학(주) 여수공장은 이번 증설을 통해 MDI를 연간 20만t, 최대 22만t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폴리켐 등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들도 이번 증설에 따라 생산량을 늘릴 방침이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 코스피지수	1,928.54 (+12.21)
▲ 코스닥지수	505.32 (+5.79)
▼ 금리 (국고채 3년)	2.79% (-0.02)
▼ 원·달러 환율	1,133.40원 (-3.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